

96.5.31

한국판 '이지메' 엄벌

가정법원, 고2 '모범생' 4명 소년원 송치 결정

심장병 급우 "괴병 부린다" 1년간 상습폭행

권혁철 기자

심장병을 앓아온 같은 반 친구를 일삼아 괴롭혀온 서울 O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소년원 송치를 비롯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부(이선희 판사)는 30일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는 같은 반 친구 장아무개(17)군을 "아프지도 앓으면서 괴병을 부려 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납치이나 못매를 주는

등으로 괴롭혀 온 최아무개(17)군 등 4명에게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군 등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5개월까지 소년원 생활을 해야 한다. 또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엄아무개(17)군에게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이런 처분은 소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 관찰 처분(보호처분 1호나 2호)에 그쳤던 관례에 비추어 강경해진 것으로,

학원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최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장군이 선천성 심장판막증으로 체육시간에 준비운동을 면제받게 되자 "멀쩡한 놈이 거짓말을 해 특별대우를 받는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장군이 담임 교사에게 맞은 사실을 고자질했다고 교실에서 집단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장군을 괴롭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한테서 얻어맞은 장군은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세에 시달려 무기력감과 대인기피반응 및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장병 환자인 피해자를 집단으로 괴롭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중상류층 가정에서 자라 우등상을 받거나 학생회 간부를 지낸 학생들이다.